

광주시,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박차

296억 투입 장애인회관 내년 착공
장애인 수련시설 2023년 준공
지역장애인의료센터 등도 운영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히 장애인 인권 증진을 비롯한 치료·재활, 체육활동, 치유 기능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회관, 장애인 수련 시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총 사업비 296억원이 투입되는 장애인회관은 2018년 장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조사 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이다.

광산구 신창동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작은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장애인 회관이 본격 가동되면 장애인단체·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안전한 여가공간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장애 영역별 취업, 의료, 인적 인프라 구축 등 재활의 종합안내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준공이 목표인 장애인수련시설은 총 371억여원이 투입돼 광산구 옛 인화학교 부지에 들어선다. 숙박, 회의, 문화, 체육활동을 위한 심신수련 시설이 마련되며 힐링과 치유를 접목시킨 복합수련시설로 설치된다. 인권기념관 및 장애인체험교육장 등을 갖추고 장애인 인권신장과 장애인식 개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복지관도 북구 옛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지내에 들어선다. 92억70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2929㎡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청각·언어장애인 교육, 재활, 치료, 돌봄, 복합 맞춤형 복지시설을 갖추게 된다. 다음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의 특성상 타 시설과 구분되는 집중적·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되면 일상 생활에서 참여와 소통, 학습, 여가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고 영역별 직업재활, 교육, 의료, 인적네트

워크 구축 등 대상자별 복합 수요에 맞는 종합재활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해 북구 북문대로 현 위치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재건축하는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폭 늘려가고 있다.

광주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의 확충과 함께 장애인 맞춤형 치료와 재활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 장애아 가족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수년간 도전 끝에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2024년 초 개원한다.

국·시비 72억원을 들여 장애아동과 고위험 아동의 재활치료, 의료서비스는 물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소아 입원 병상 24개를 설치하는 등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에 전남대학교병원이 선정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는 기관으로,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지원, 의료봉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기자 노트

기억해야 할 이름 김홍빈

김홍빈 대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07년이었다.

“김홍빈입니다. 반갑습니다.”라며 그가 악수를 청했다.

으레 내미는 손이라 생각하고 반사적으로 맞잡지만 당황하고 말았다. 당시 김 대장이 누군지도, 등반 도중 손가락을 잃었다는 것도 몰랐기에 더욱 티가 났을 것이다. 당연한 반응이라는 듯 김 대장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몽특하고 거친 김 대장의 손을 처음 잡은 그날,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미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극복하고 있었다. 도전의 과정에서 장애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임버록 처럼 말했다. “저같이 장애에 있는 사람도 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김 대장은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힘과 용기를 준 산악인이었다.

2015년 4월 지진 피해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네팔에서 김 대장을 다시 만났다.

로체(8516m) 등정을 위해 왔던 김 대장도 베이스캠프가 지진 피해를 입어 수도인 카트만두로 대피한 상태였다. 그는 “히말라야 여신이 이번엔 못 올라가게 하네요”라며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이어갔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준비한 원정이라 속상할 법도 한데 남 일 얘기하듯 했다. 그렇게 자연에 겸허했기 때문에 술한 잔을 고비에도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김 대장이 등정에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산행을 감행했다더라면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보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김 대장은 2년 뒤인 2017년 5월 로체 등정에 성공했다. 그 여세를 몰아 그 해 7월 파키스탄 낭가파르바(8125m) 정상도 밟았다.

지난 4월 영암 월출산 시루봉 암벽등반 훈련



김진수
사진부 차장

때 만난 김 대장은 기자에게 브로드 피크 원정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 자신의 마지막 8000m급 히말라야 완등의 순간을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보다. 그는 기자에게 비행기표까지 발권해주며 매일 같이 전화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는 원정 기간을 버틸 자신이 없었다.

원정에 나서던 날, 김 대장은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저의 8000m 14좌 꿈인 마지막 브로드피크 등반이 온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전 대원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원정대장 김홍빈 드림” 김 대장은 그렇게 위로받기 보다 남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려했다.

김 대장은 지난 달 18일 밤 브로드피크 등정 성공이 들려온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실종됐다. 김 대장을 아끼는 모든 이들은 그의 생환을 간절히 바랐지만 가족들의 뜻에 따라 수색이 종료됐다. 달리 말하자면 김대장이 수색을 종료하도록 했다. 그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혹, 내가 산에서 일을 당하면 결코 나서지 말라. 나를 찾느라 나산 산악인들이 2차 피해에 희생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사실상 유언이 된 이 말 때문에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김 대장과 이별을 준비하게 됐다.

8일 김 대장의 영결식이 진행됐다. 그를 히말라야 품에 맡겨두었지만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 술한 고난과 역경에도 희망이 되고자 했던 그를 기억하는 일이다. 때마다 광주산악회 등에서 그를 기리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디 시민, 산악인의 염원이 결실을 맺으리라 한다.

/jeans@kwangju.co.kr

광주 중앙공원특례사업 계획안 27일 최종 결정

사전검토위 3~4개안 마련 표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안(조정안)이 오는 27일 최종 결정된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장시간 논의 끝에 오는 27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3~4개 계획안을 마련한 뒤 오는 27일 위원회에서 표결 등의 방식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사업 규모, 분양,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 내분 등 논란에 따라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정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

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는 기존 1898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낮췄다. 특히 논란이 된 80평형(분양), 45평형(임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로 분양 383세대,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총 세대수도 기존 2827세대에서 2804세대로 줄었으며 아파트 건설비 단가는 3.3㎡(평)당 65만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조정안 마련 후에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이 무등산 조망권 확보와 공공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두 차례나 연기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영향평가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류 집단 폐사까지...불어나는 폭염피해

가축 3만7000여마리, 넘치·우렁 등 15만6000여마리 폐사

지속된 불볕더위로 바다 수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어류 집단 폐사까지 발생하는 등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울릉도에서 전남에서는 농가 109곳에서 가축 3만 774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돼지 농가 86곳에서 838마리가 폐사했고 양계 농가 15곳에선 2만7081마리의 닭이 죽었다. 오리 농가 6곳에선

2130마리가 폐사했고 농가 2곳에선 메추리 등 77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 됐다. 다만 폭염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2018년 동기(8월 7일, 70만 3007마리)와 비교하면 피해는 5.4% 수준이다.

뜨거워진 바다에선 어류 폐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남도에 접수된 피해 어가는 10곳으로 넘치, 우렁 등 모두 15만6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

다. 현재 함평관과 득량만, 남해 내만 연안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하거나, 지속이 예상되는 해역, 전일 수온 대비 5도 이상 상승하거나 평년 대비 3도 이상의 급격한 수온 변동으로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경우 발령된다. 가막만과 신안 흑산 앞바다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8일 기준 함평만(석두) 수온은 30.2도, 득량만(장흥 사촌)은 30.3도, 가막만(여수 신월)은 30.6도를 나타냈다. 이는 평년 수온의 1.9~5.6도 높은 것으로 큰비 또는 태풍 없이 폭염이 지속할 경우 어류 폐사량이 감 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주** **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8) **266-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9) **573-4150**

온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8) **528-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매곡지점 (북구 설곡로 315번길1) **572-4150**

첨단지점 (북구 첨단안로9번길29-2) **576-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83, 285) **263-4150**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에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